

영광 한빛원전 내에 저장시설 건설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 되나

정부,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 가동 중장기 로드맵 발표
한빛원전, 30여년 임시보관 저장공간... 2024년이면 포화

영광 한빛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타고 남은 폐연료봉) 저장시설이 건립된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35년께 가동에 정인 중간저장시설보다 11년 앞서 영광 한빛원전 수조에 첫 가동 이후 30여년간 '임시' 보관 중인 저장공간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호남예술제 "나도 화가"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치동물원에서 열린 제61회 호남예술제 미술부문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5월 눈부신 신록 아래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민센터 명칭 또 바꾼다고?" ▶ 7면



그림편지 - 김영태의 이스라엘 ▶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조선 이어 철강업 구조조정 전남 제조업 양대 축 '비상'

전체 생산액의 20% 차지

조선 이어 공급과잉 상태인 지역 철강업계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철강은 조선과 함께 전남 제조업의 양대축이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대책 마련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구조조정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성할 건설업 업체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품목별 공급과잉 문제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업체들은 보고서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8월 13일 시행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포스코는 이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외 34개 계열사를 정리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계열사 35개사를 매각하거나 청산할 계획을 잡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하청을 받거나 대부분 영세한 지역업체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남도내 철강업체는 모두 293개로, 지난해 전남도내 제조생산액(116조7000억원)의 19.1% (22조3000억원)를 차지할만큼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남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역 철강업계의 실적 개선에 들어선 지난해 광양항의 물동량도 2049만9000t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8.0%가 급감하는 등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고광강의 가공기술 연구 개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산업화, 지역 금속가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지역철강업체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자금 지원 조건 완화, 뿌리산업 인프라 구축,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전남도에 요청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장흥군 "국립한국문화관 우리 고향으로"

문광부에 유치신청서 제출
광주, 학동·광산구 부지 제안
장흥, 맨부커상 한강 마케팅

광주시와 전남 장흥군이 국립한국문화관 유치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25일 제출한 유치신청서에서 동구 학동 중심사입구역 인근, 광산구 어등산관광단지 내 부지를 국립한국문화관 건립 대상지로 제안했다. 전남은 지난 23일 장흥군의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건립 후보지로 정해 유치를 신청했다. <관련기사 5면>

시는 예방이자 문화의 고향인 광주에 국립문화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책현안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에서 진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지구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문화관

이 들어서면 10년째 담보상태인 해당사업에 기록제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문화현안이 있는 동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중심지이기 때문에 문화관 유치 후보지에 포함됐다.

장흥군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 최조이자 유일하게 '문화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되는 등 문화고장으로 특화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문화 대표 작가 24명 중 이준중·한승원·송기숙 등 3명이 장흥 출신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한승원씨의 딸이라는 점도 적극 알리고 있다.

문체부는 다음 달 국립한국문화관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개관 시점은 2019년이다. 국비 450억원이 투입돼 국내 문학역사를 체계적 수집, 복원, 연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홍=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2016 내가슴愛약속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 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